현대소설연구(제88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12.88.215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작품을 중심으로

배 개 화*

요약

이 논문은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그에 따른 '시장 경쟁'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든 생산을 국가가 계획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사고팔기가 없다고 말해진다. 그런데, 1990년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 위기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촉발하였다. 국가의 배급이 끊어지자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가해서 생필품을 구하였으며 사적 시장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암묵적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2008년부터 '천리마 운동'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만리마 운동'의 깃발 하에 주민들을 대규모로 노력 동원하였다. 반면에 탈북작가들은 자신의 소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시장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유경의 『청춘연가』(2012), 설송아의 「진옥이」(2015), 그리고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2018), 「거미줄 철도」(2021), 「황해도 데미지」(2022)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 즉 장마당 상인들 간의 경쟁, 돈주 (상업 자본가)와 중간 도매상 간의 경쟁, 그리고 사노동 시장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 적응력이 필요하고, 돈주가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피라미드의 하층에 가까울수록 시장

* 단국대학교 교수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 생존 자체의 위기로 귀결됨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이상의 소설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시장 경쟁'을 묘사함으로써 여전히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는 북한당국의 공식 담론에 도전하는 동시에, 현재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경쟁과 동원의 이중고를 폭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탈북작가, 고난의 행군, 시장화, 경쟁, 돈주, 사노동, 노력 동원

목차

1. 서론: 북한의 시장화가 가져온 사회 변동
2. 장마당 상인들 사이의 경쟁 - 『청춘연가』, 「진옥이」
3. 돈주와 중소 상인 사이의 경쟁 - 「거미줄 철도」, 「황해도 데미지」
4. 사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경쟁 - 「재수 없는 날」
5. 결론: 경쟁 사회로 변화 중인 북한 사회

1. 서론: 북한의 시장화가 가져온 사회 변동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에 뒤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런 위기에도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여전히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북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장마당이나 사노동 시장이 생겨났고 여기에 참여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시장 경쟁'을 하였다. 탈북작가인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실을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하였다. 세 작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가 가져온 '시장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의 공식 담론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일상의 원리를 조명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든 생산을 국가

가 계획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생존을 위한 경쟁은 없는 사회라고 말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주의 노력 경쟁'이라는 것이 있다.[1]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회주의 노력 경쟁은 1956년 12월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으로 사회주의의 완성이라는 조선로동당의 기본 노선의 실현을 위한 대중동원 운동이었다.[2] 2008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천리마 운동'을 재개하였으며, 2016년 김정은이 경제 건설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자 북한당국은 천리마 운동을 '만리마 운동'으로 이름을 바꾸어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대중 노력 동원 운동을 전개하였다.[3]

이처럼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고집하는 동안,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 경제(dual economy)' 구조로 변화하였다.[4] 1990년대 초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 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1990~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1995년에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섰고 거의 모든 생필품과 식량을 시장에서 구하였다.[5]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배급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시장에 의한 자원분배가 본격화되었다. 상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쌀 가격

1) 사회주의노력경쟁은 소련에서 시작되었으며 '스티하노프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촉발해서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존 M. 톰슨,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2011, 375-376면.

2) 김진환, 「천리마 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보』 20호, 북한연구학회, 2016.12, 55면.

3) 김진환, 「천리마 운동」, 31-62면. 북한의 경우, 해방기에 이기영, 이찬 등이 소련을 견학하고 쓴 기행문을 통해서 이 운동을 북한 사회에 소개하였다;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50호,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12, 379-382면.

4) 양문수, 「2000년대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제9권 제5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 9-11면.

5)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7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29-30면.

을 장마당 가격과 연동시키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과 상승하고 임금도 동반 상승하였다. 2003년 3월, 북한이 상설시장인 종합시장을 전국에 설치하도록 허용한 조치는 제도적 차원에서 시장 경제를 촉진하였다.[6]

북한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행위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은 계층성을 갖게 되었다. 시장 경제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신흥 부유층인 '돈주'라고 불리는 상업 자본가가 있다. 중간층에는 각지의 물품을 사들여 전국 각지의 시장 또는 장마당에 유통하는 도매상인이 있으며 시장 경제의 피라미드 가장 아래층에는 소매상인(매대 상인과 행상인)이 있다.[7] 또한,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는 또한 상업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노동 수요를 창출하였다. 여기에는 삯노동뿐만 아니라 물건을 수레로 옮기는 일, 물건을 상하차하는 일, 혹은 차를 운전하는 일 등이 있다. 많은 남성 노동자들은 기업소에 상납금을 내고 출근을 면제받은 후, 가내수공업이나 사노동을 하여 생계비와 상납금을 벌고 있다.[8]

탈북작가인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은 북한의 시장화와 그 영향을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유경의 『청춘연가』(2012), 설송아의 「진옥이」(2015), 그리고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2018), 「거미줄 철도」(2021), 「황해도 데미지」(2022)는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는 손수레꾼이나 삯벌이와 같이 사노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장화가 가져온 북한 주민의 계층화와 빈부 격차도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의 소설들은 기존의 북한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

6) 위의 글, 40-44면;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제10권 제2호, 2007, 86면.
7)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94-97면.
8)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2010.6, 41-54면. 공용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 분야 전체를 걸쳐서 비공식적인 노동 시장(사노동 시장)이 존재한다.

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경쟁'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작가들의 소설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탈북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이다. 서세림은 김유경의 『청춘연가』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모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여성 주인공을 고향(북한)에 대한 양가감정을 내면화한 우울증적 주체이며;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고통을 다른 탈북자들의 고통과 연결하면서 치유하는 자아로 변모했고; 폭력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윤리적 주체로 성장하였다고 분석한다.[9] 두 번째는 '북한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경재는, 리지명은 권위주의적 남성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여성상, 김정애는 돌봄의 윤리를 체화한 여성, 그리고 설송아는 이악함을 무기로 시장의 주체가 된 여성을 소설에서 묘사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서세림은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인간모독소』에서 표현된 탈북 여성의 '모성' 인식을 분석하였다.[10] 세 번째는 탈북작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것이다. 정하늬는 도명학과 리지명이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영위하지 못하는 북한사람의 삶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았고; 박덕규는 반디의 『고발』과 도명학의 『잔혹한 선물』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현실을 묘사하는 데서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으며; 서세림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인권 문제를 '먹는 문제'로 조명하였다.[11] 네 번

9) 서세림, 「탈북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면; 연남경,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421-449면;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4, 1-21면; 백지윤, 「탈북작가의 '몸' 형상화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김유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4, 2017, 125-147면.

10) 이경재, 「탈북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통일인문학』 76,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55-285면;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에 나타난 모성 인식」, 『현대소설연구』 82,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27-254면. 김영미도 「탈북 여성 작가 소설 속 (재)구성된 여성 주체의 의미」(『한국문학과 예술』 43,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2, 59-91면)에서 이경재와 유사한 관점에서 김정애와 설송아를 분석하였다.

째는 북한의 시장화가 가져온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속한 논문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주민들이 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북한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이 변화한 양상, 그리고 지식인들의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12] 이 중 네 번째 범주의 연구는 이 논문과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인 '시장 경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이 논문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첫째, 장마당 상인들 사이의 경쟁 김유경의 『청춘연가』(2012)와 설송아의 「진옥이」(2015), 둘째, 돈주와 중소 상인들 사이의 경쟁-도명학의 「거미줄 철도」(2018)와 「황해도 데미지」(2022),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경쟁-도명학의 「재수없는 날」(2018)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당국이 시장 경제를 묵인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쟁'과 '동원'의 이중고를 강조하고 이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11) 정하늬, 「탈북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면; 박덕규,「'북한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 〈고발〉과 〈잔혹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7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63-86면; 서세림, 「탈북 작가들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의미 연구」, 『영주어문』 44, 영주어문학회, 2020, 173-199면.

12)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면; SEEMA, 「탈북 작가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 양상 연구」, 『춘원연구학보』 24, 춘원연구학회 2022, 89-116면; 서세림, 「탈북 문학에 표상된 지식인」,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235-262면.

2. 장마당 상인들 사이의 경쟁 -『청춘연가』,「진옥이」

1990년 중반 북한의 경제 위기는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화를 가져왔다. 1995년 말 조선로동당이 배급 중단을 결정하면서부터 식량난은 북한의 동북 지역에서 시작하여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일터에 나가도 배급이 나오지 않게 되자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였다.[13] 그와 동시에 장마당을 배경으로 '시장 경쟁'도 시작되었다. 탈북작가 김유경도『청춘연가』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겨난 사정과 함께 시장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묘사하였다.

우선, 이 소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겨난 상황과 함께 사람들이 시장 활동과 개인 이익의 추구를 긍정하는 쪽으로 의식이 변화했음을 묘사한다. 배급이 끊어지자 "마치 세상의 본능인 듯 시장이 골목과 아파트 사이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14] 2~3년 동안의 장마당 활동은 북한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바꿔놓았다. 즉, "사람들은 배급이나 노임이 참으로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장사를 하면 얼마든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북한사람들은 점차 시장을 알게 되었고 시장에 열광했으며 시장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수준으로 생활이 향상된 사람들도 있었다."[15]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을 국가보다는 개인 장사와 '돈'의 위력을 더욱 믿고 거기에 의지하게 변화시켰다.

이어서 이 소설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13) 임순희,「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183-185면.

14) 김유경,『청춘연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27면.

15) 위의 글, 37면.

> 북한사람들은 시장이 없으면, 사장에 붙어먹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노동 시장이 전무한 북한에서 시장은 어느새 북한사람들의 유일한 생활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역시 성공은 소수의 것이요, 치열한 생존싸움이 근본인 시장은 많은 낙오자를 내뱉었다.** 거기에 시장을 두고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당국의 단속이 한몫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쫓기고 빼앗기면서도 억척같이 사장에 매달렸다. 그렇게 시장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줄을 놓친 사람들은 낙오자로 굴러떨어졌다.(강조 인용자)[16]

주인공 선화의 가정 역시 이러한 시장 경쟁과 당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낙오자로 굴러떨어진 경우였다. 선화 가정의 상황은 당시 중하층의 북한 주민들이 시장 참여와 몰락의 경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장마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동 의무가 면제된 가정주부들이었다.[17] 가족의 생계는 아내나 어머니의 장사 능력 혹은 시장 적응력에 달려있었다. 만약 가족 내 여성이 장마당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그 가족은 굶주리게 되며 심할 경우 아사할 수 있다.[18] 선화의 가정에서도 가족 생계의 책임은 지게 된 사람은 어머니였다. 이후 선화 어머니가 아프게 되면서 선화가 장사에 나서지만, 얼마 안 되는 자본은 점점 고갈되고 결국 선화의 가정은 파산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 전까지만 해도 선화의 어머니는 대학교수인 남편과 중학교 교원인 딸의 배급표에 생계를 의지하였다. 하지만 배급이 갑자기 끊어진 이후에도 남편과 딸은 출근 의무와 체면 때문에 계속 직장에 나갔

16) 위의 글, 37면.

17)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183-185면.

18) 탈북작가들의 작품들은 대체로 여성의 시장 적응력을 가족 전체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현모양처가 등장하는 소설의 경우, 가족 전부가 굶어죽는 것으로 끝난다. 관련 내용은 이지명의 「금덩이 이야기」(『금덩이 이야기』, 서울: 예옥, 2017, 99-125면)와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단군릉 이야기』, 서울: 예옥, 2019, 219-244면)을 참조.

다.[19] 다행히 1년간 어머니가 모아놓은 쌀 덕분에 선화의 가족은 기아는 면하였다. 쌀이 떨어진 후에는 선화의 어머니가 남편(정학민 교수)이 전국 지식인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텔레비전을 팔아서 그 돈을 밑천으로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 초보자인 탓에 강옥련은 텔레비전을 판 돈을 같이 굴린다는 조건으로 장사에 이력이 튼 옆집 여자와 함께 채소 장사를 하였다. 다행히 선화네 가족은 어머니가 채소 장사로 번 돈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채소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선화네 가족은 또다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직접적인 원인은 동업하던 옆집 여자의 배신-몰래 자기 집을 팔고 밑돈을 갖고 사라짐-했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와 시장 참여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격화가 있었다: "이때[1997-8년 즈음]는 전 국민이 자그마한 밑천을 가지고 그때부터 물밀 듯이 밀려오기 시작한 중국 상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때였다."[20] 이것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시장이 중국산 소비재의 유통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정과 일치한다. 이때부터 중국과의 연결망을 가진 외화벌이나 무역회사, 그리고 차판 장사, 보따리 무역 업자들이 장마당에 중국 상품을 수입하여 장마당에 유통하면, 소매 상인들은 이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21]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하였지만, 경쟁의 격화로 선화네와 같이 극소자본으로 하루벌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어머니가 장사 밑천을 사기당하고 아프게 되면서 선화의 가정은 빈곤

19)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생활이 어려워도 일상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의 직무를 중단하고 부업을 할 수 없었으며 당의 통제도 보다 엄격했으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난에 따른 생활고가 심하였다"고 한다;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170-171면.

20) 김유경, 앞의 글, 41면.

21)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55면.

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22] 어머니를 대신해서 선화가 교사를 관두고 장마당 장사에 참여하였다. 다행히 아버지가 대학교수에게 배정되는 두 칸짜리 아파트를 받은 덕분에 새롭게 장사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채소 장사할 밑돈 정도였다.[23] 한 번도 장사해본 적 없는 선화는 어머니가 누워서 시키는 대로 새벽에 손수레를 끌고 도시 변두리로 가서 채소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바닥에 비닐 자루를 놓고 채소를 손저울로 팔았다.

장마당에서의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선화는 호객행위도 하고, 심지어는 손님을 두고 다른 상인들과 다투기도 하였다. 이미 채소 장사에 이골이 난 아줌마들은 능숙하게 손님을 불러들였고 손 저울질도 순식간에 했다. 반면에 선화의 채소는 잘 팔리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본전으로 팔아야 했다. 그렇게 이윤이 얼마 안 되는 장사를 몇 달 하고 나니 밑천이 많이 줄었다. 선화는 집을 팔아 마련한 마지막 밑천마저 바닥이 나면 정말로 큰일이었기 때문에 선화는 어느새 얌전한 처녀에서 영악한 시장 아줌마로 변해 버렸다. 그녀는, "점차 손님을 끌기 위해 '사시오' 하는 소리를 낼 줄 알았고, 손 저울질도 제법 능숙하게 했다. 그리고 채소를 넘겨받을 때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입씨름을 할 줄도 알았다. 누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면 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했다."[24]

하지만 2002년 7월 1일 북한 정부가 물가와 임금의 현실화를 목표로 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공포하면서 선화는 변화된 시장환경과 물가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장마당에서 도태된다: "[7·1 조치로] 돈 가치가 뚝 떨어지고 물가가 한 달 새 몇 배로 뛰어올랐다. 선화네 집은

22)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부의 건강이 좋지 못한 가정도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세대주들은 배급이 없어도 공장.기업소에 나가야 해서 가정경제는 주부들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위의 글, 56면.

23) 위의 글, 42면.

24) 위의 글, 75-76면.

순식간에 휘청거렸다. 그때부터 밑돈이 점점 줄었다. 마침내 몇 달을 못 버티고 밑돈은 바닥이 났다. 선화는 시장에 가서 손수레마저 팔아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25] 주인공 선화가 파산하게 된 것은 7.1조치가 물가의 기준이 되는 쌀의 가격을 공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한 것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의 물가는 25배 그리고 임금도 20배 정도 인상되었다.[26] 이처럼 당국이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인정하면서 장마당 상인들과 돈주들은 더 큰돈을 벌 기회를 잡았지만, 7.1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주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도 커졌다.[27] 주인공 선화와 같이 자본금이 아주 적은 영세 상인들은 물가의 폭등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장해성의 『두만강』(2013) 그리고 설송아의 「진옥이」(2015)도 장마당 상인들의 경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묘사된 장마당 풍경에는 상인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이나 남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 경쟁' 같은 것도 있다.

> [가] 장마당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구정물이 흐르는 도랑 옆자리밖에 없었다. 거긴 국수 칸에서 나오는 구정물 냄새가 고약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자리였다. 그래도 할 수 없어 혜영은 그곳에 두부를 내려놓으려 하는데 복녀아주머니 잠깐 기다리라 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드는 출입구 앞자리에 가더니 감자 몇 알을 놓고 앉아있는 할머니 옆에 두부버치를 내려놓았다. 당장에 그 주위 아주머니들이 뽀족하게 날을 세우며 야단을 피웠다.
>
> "아니 어딜 끼어들려고 그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람같이 보이

25) 위의 글, 76면.

26)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41면.

27) 이영훈에 따르면 "공장이나 기업소로부터 임금과 배급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할 능력조차 없는 주민들은 물가상승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위의 글, 46-50면)

지 않는 거야? 당장 저리 물러나지 못하겠어?"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말 뼈다귀야? 당장 비켜라. 비켜!"

거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28]

[나] 작달뱅이 아줌마가 가끔 시비도 걸어왔다. 자기 손님 뺏는다고 쌈을 걸 때는 악담을 퍼붓는 건 보통이고 머리끄덩이 쥐고 싸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진옥은 점점 야성적으로 변했다. 기름이 잘 팔리지 않을 때는 작달뱅이 아줌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덤벼들어 머리칼 한 줌을 뽑아놓고야 분을 삭혔다. 악발이로 변한 진옥에게 작달뱅이 아줌마는 더 이상 덤비지 않았다. 그 대신 요염한 계집에게 운전수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담배 한 갑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진옥은 한 수 더 떴다. 수출 석탄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수들을 자기 손님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한동네에 있는 본가 집을 냉면집으로 만들었다. 친정집이 기름 창고와 멀지 않은 데 있어 더 많은 트럭이 식사 겸 기름 보충도 할 겸 몰려들었다.[29]

[가]는 『두만강』의 한 부분으로 1996년 배급 중단 직후 생긴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최하층 상인들 사이의 경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치열한 장마당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마당에 참여한 여성들은 거칠고 억센 기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안원과 같은 배경도 경쟁의 필수 요소이다. 기존 상인들이 혜영과 은영을 위협하자 이 소녀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복녀는 자기 남편이 보안소(한국의 파출소) 소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자 상인들에게 겁을 주었다.[30] 그 이유는 보안원에의 단속에 걸리면 상인들은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심한 경우 노동단련대나 노동교화소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31]

28) 장해성, 『두만강』, 파주: 나남, 2013, 199-200면.

29) 설송아, 「진옥이」, 『국경을 넘는 그림자』, 서울: 예옥, 2015, 235-236면.

30) 장해성, 『두만강』, 201면.

[내]는 설송아의 「진옥이」의 일부분으로서 자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휘발유 판매 상인들 사이의 경쟁을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진옥이는 결혼 2년 차인 1998년 즈음 진옥이는 친정아버지가 준 밑돈 (쌀 한 톤)으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직접 제조하여 장마당에서 판매하였다. 우연히 진옥은 트럭 운전수들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큰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옥은 화학 공장 간부 과장이었던 시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여 국영 석유 공급소에 뇌물을 주고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진옥이는 기름 장사를 시작한 지 일 년 만에 많은 단골을 확보하여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진옥은 [나]에서 묘사된 것처럼 작달뱅이 아줌마로 불리는 다른 석유장수와 손님 유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이 둘은 시비나 몸싸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 경쟁'도 하였다. 작달뱅이 아줌마가 고정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담배를 서비스로 주는 것은 남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생수병을 서비스로 주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진옥이 휘발유 창고 근처에 있는 친정집에 '냉면집'을 만들어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도 한국 주유소에 편의점이 같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기사 식당과 주유소를 같이 운영하는 진옥의 장사 방법은 국내 주요소의 운영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진옥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손님 유치에 이용하였다. 국내 정유사 광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나와서 주유하는 것을 모방이라도 한 듯이 진옥도 늘 남자를 자극하는 살짝 패인 옷을 입었다. 또한, 고정 손님 중 한 명과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다른 장거리 운전사들을 소개받았다. 동업자들은 이런 진옥을 도덕이 없다고 험담하였지만, 진옥은 이것을 약자들의 험담으로 무시할 정도로 경쟁

31) 북한의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적 상행위를 한 죄에 대한 양형은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나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이다; 김수암 외 3명, 『북한의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77, 82면.

을 즐기는 장마당 기질을 갖고 있었다.[32]

이상에서처럼 탈북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북한 상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에게 텃세를 부리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경쟁도 하는 것을 묘사했다. 이 작품들은 또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여 점점 더 상인 계층의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춘연가』의 선화처럼 돈벌이가 되는 장사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고 만다. 또한, 선화의 사례는 '시장 적응력'도 시장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선화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손수레(구루마)를 팔고 자발적으로 중국인과의 매매혼을 결정하는 반면에, 「재수없는 날」에서 금옥이 남자 일꾼을 고용하여 구루마로 짐을 나르고 생계를 도모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33]

3. 돈주와 중소 상인 사이의 경쟁 – 「거미줄 철도」, 「황해도 데미지」

도명학은 「거미줄 철도」에서 삼면경대 '달리기(혹은 되걸이) 장사'에 나섰던 초보 장사꾼이 돈주와의 경쟁에서 밀려 큰 손해를 본 것을 묘사하고 있다.[34] 돈주들은 약 5천-1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일종의 상업 자본가로서 상품유통을 개시하는 주체이며, 청진, 신의주, 라진 선봉 지역 등 대외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에 가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전국적으로 상품을 유통,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돈주의 아래층에 있는 소형도매

32) 설송아, 「진옥이」, 236면.
33) 도명학, 「재수 없는 날」, 『잔혹한 선물』, 파주: 푸른사상, 2018, 15-38면 참조.
34) 도명학, 「거미줄 철도」,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서울: 예옥, 2021, 89-136면.

상인 '달리기(혹은 되걸이) 상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판매한다.[35] 달리기 상인들은 지역 간 시세차익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는데, 도매상에게 넘겨받은 가격에 30~40% 정도를 붙여서 소매상들에게 넘긴다. 하지만 보안원이나 철도 직원 등에게 주는 뇌물(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듦)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크지 않다.[36]

도명학의 「거미줄 철도」를 보면,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혜산의 삼면경대를 평북에서 팔면 6~7배, 그리고 신의주에서는 7~8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삼면경대를 혜산에서 평북지역으로 운반해서 팔면 이득은 확실한데 그에게 그럴 만한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나는 아내가 장마당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쟁자들에게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목돈깨나 쥔 자들과 함께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엔 그들에게 끌려다녀야 할 것이고 어쩌다 취한 정보는 곧 상식이 돼버려 벌이가 안 될 것이었다. 그래서 전문장사꾼이 아닌 내가 낫다고 타산한 것이었다."[37] .

나와 친구는 거울만 기차 화물로 태천까지 운반해서 그곳에서 경대 완성품을 만들어서 평북에서 팔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둘의 계획은 환승역인 간리역에서 평북으로 떠나는 기차의 연착으로 틀어지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기차로 혜산에서 평북까지 가려면 보름이 걸리는 거리이다. 평

35)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94-97면; 돈주는 고난의 행군기에 초기 자본을 축적하여 2002년 7.1조치 이후 큰돈을 벌어 북한 사람에게 신흥 부유층으로 알려졌다. 돈주의 자금 규모는 점점 커져 2016년 연구 발표에 따르면 평양에서 소돈주는 10만 달러를 그리고 중돈주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00만 달러를 가진 대돈주는 약 100명,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은행급 돈주는 10명이 있다고 한다; 곽인옥 · 임을출, 「평양 시장 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 2016, 282면.

36) 「북한 시장화의 주역은 '중간도매상'」, 『Daily NK』, 2010.03.25.

37) 도명학, 「거미줄 철도」, 95면.

북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도매상인들에게 삼면경대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에, 장사의 성공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경의선과 평나선의 교착지인 간리역에서 기차가 연착되면서 7일 정도의 운송 기간이 늘어났다. 상인들 사이의 경쟁과 물건의 회전율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곧 돈인 상인들에서 이러한 연착은 큰 손해를 입힌다.

둘은 평양 근교 간리역에서 거울 가격을 알아보니 소문대로 혜산보다 2~3배 비쌌다. 둘이 경대 거울을 갖고 있다는 소문에 지역 장사꾼들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나와 친구에게 간리역에서 7일 동안 평북행 기차를 기다리는 데에 경비를 많이 쓰지 말고 자기들에게 빨리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말한다. "장사는 회전이 빨라야지 기차두 잘 안다니는데 그래갖고 되갔시오?"라던가 "우리랑 신용거래 맺고 앞으로 여기 오면 그 자리서 물건 넘겨받고 돈 다 쳐주고 차표랑 끊어서 돌아가는 차에 태워드릴 거니까, 어드래요? 기케 하자요."라며 물건을 팔라고 졸랐다.[38] 하지만, 적은 자금력으로 최소 원가의 최대 이윤을 노리는 두 명에게 지역 상인의 올바른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9]

7일도 훨씬 지난 뒤인 어느 날 두 사람이 완성된 경대를 가지고 안주시장마당에 갔을 때는 이미 경대가 장마당에 많이 공급되어 있었고, 가격도 예상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안주 장마당의 경대 가격이 며칠 전 갑자기 싸진 것은 '차판 장사'[40]를 하는 돈주들이 경대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 이런 교통중심에는 "돈주"라 불리는 큰손들이 서식하기 마련이다. 안주 장마당 경대 가격이 그렇게까지 싸진 것도 불과 며칠 전부터였다. 우

38) 위의 글, 104면.

39) 위의 글, 101면.

40) 공용철에 따르면, '차판 장사'는 차량이나 기차를 빌려 상품을 전국에 유통하는 장사이다. 자금력이 좋은 돈주들은 신의주나 혜산, 나진, 선봉, 청진 등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을 차량을 이용해서 전국에 유통한다. 이들은 북한 전역을 단일 시장으로 바꾸고 가격이 평준화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22면.

> 리가 길에서 숱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우려했던 대로 삼면경대가 이 지역에서 돈 된다는 정보가 혜산의 큰손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자금력 있고 전국에 네트워크가 구축돼있는 그들의 움직이면 단 며칠 만에도 장사 판도가 뒤바뀐다. 그들은 굼벵이 같이 움직이는 열차보다 트럭에 상품을 대량으로 싣고 신속히 이동해 물건들을 싼값에 뿌려버린다. 그러니 우리 같은 개미들이 녹아날 수밖에 없다.[41]

설상가상으로 나와 친구가 경대를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지역 상인들보다 싼 가격에 경대를 판매하자, 지역 상인들이 이들을 견제하였다. 그들은 시장관리원과 지역 불량배를 이용하여 장마당에서 철수할 것을 압박하였다. 현지 상인들이, 외지인이 자기들보다 싼값에 경대를 팔아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 나와 친구는 물건들을 모두 지역 상인에게 도매가격으로 넘기고 돌아왔다.[42]

「거미줄 철도」는 달리기 상인이 상품을 전국에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시장이 이미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시장의 최상위에 있는 돈주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빠르고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자금력이 약한 달리기 상인들은 틈새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큰 자본으로 많은 상품을 시장에 빠른 속도로 유통하는 돈주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

---

41) 위의 글, 127면. 도명학 작가는 소설 속에서 돈주의 경쟁력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자금력이 빵빵한 '돈주'들은 그렇게 물량공세를 한다. 그들은 완제품을 싼값에 대량 구매해 트럭에 싣고 이동하는데 도착지에 가서도 현지 시가보다 싸게 도매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번다.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고 회전이 빠르고 쉽고 폼 나게 버는 것이다." (101면)

42) 위의 글, 126면. "장시간 경대를 펼쳐놓고 있어도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시장관리원이 나와 외지사람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토착민 경대 장사꾼들은 자기들한테 넘겨주고 냉큼 사라지라고 협박했다. 그들 입장에선 그럴 만도 했다. 그들보다 싼 가격에 소매하니 가만 있을 리 없었다. 급기야 불량배들을 불러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괜한 트집을 걸며 싸우려 들더니 경대 하나를 발로 차 단박에 깨버렸다. 좀더 이득을 보려다가 졸지에 알거지가 될 판이었다. 결국 죽기보다 까무러치는 것이 낫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매로 넘기고 말았다."

도명학의 다른 소설 「황해도 데미지」(2022)는 영세한 골동품 거간꾼이 큰 자금을 가진 골동품 거간꾼과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43]

> 알고 보니 신의주에서 골동품 사러 오는 사람들은 10만 불 이상 들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해주 거간꾼들은 지금까지 신의주에서 오는 "골동로반"(조선족 중국인들이 골동품 전문가들을 부르는 말이 이곳에도 유입되었다)들은 있었지만 혜산에서 온 '골동로반'들은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럴 만도 했다. 황해도는 신의주에서 그리 멀지 않고, 골동품 가격도 신의주가 혜산보다 비쌌다. 혜산 사람들은 주로 동부지역과 거래했다. **결국 신대륙마냥 착각하고 온 황해도는 이미 신의주 '골동로반'들이 한참 앞서 석권한 시장이었다.** 그 틈새를 멋모르고 '뵈는 게 없는 잡놈'들이 치고 들어 온 격이다. 그러니 처음 느낌과 다르게 점점 찾아오는 거간꾼들이 줄어들었다.[44](강조-인용자)

골동품 거래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사람들이 돈주로 발전할 초기 자금을 마련한 분야였다.[45] 「황해도 데미지」의 주인공도 중국 국경도시 혜산에서 골동품 거간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거래처인 조선인 상인은 "혜산, 신의주, 무산 세 곳을 번갈아가며 골동품을 구해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인 골동품 상인들에게 팔아"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골동품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어느 날, 주인공은 황해도에 가면 고려청자, 조선백자, 병풍, 족자 같은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조선족 상인과만 거래하기로 하고 그에게서 1만 미

43) 도명학 작가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는 친구와 함께 잠시 골동품 거간꾼을 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의 경험을 소설로 썼다; 「필자와 도명학 작가와의 인터뷰」, 2022년 8월 10일

44)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해주 인력시장』, 서울: 예옥, 2022, 91-92면.

45)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3.01, 174면.

국 달러를 빌렸다.[46]

주인공이 황해도 해주에 갔을 때 혜산에서 새로운 골동품 거간꾼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사람이 골동품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그중에는 인민군 대좌 계급장을 단 군관도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차에 병풍을 싣고 왔다. 그가 가져온 병풍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진품이었다. 이 군관은 대단한 벼슬아치가 쓰던 거라며 병풍값으로 1만 달러를 불렀지만, 주인공은 5천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 군관은 "난 또 혜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통이 큰 줄 알고 왔더니, 관둡시다. 신의주 사람들에게 파는 게 낫겠군."하고 가버렸다. 이 일로 혜산에서 온 골동품 거간꾼이 자본력이 약하다는 소문이 퍼졌다.[47]

주인공은 1만 달러밖에 없기에 싸면서도 되팔면 몇 배 이익이 될 골동품을 살 계획이었다. 반면에 신의주에서 오는 골동품 거간꾼들은 10만 불 이상의 자금을 갖고 해주로 오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의 골동품 거간꾼들과 신용도 쌓은 상태였다. 주인공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자금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속히 식었다. 골동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수도 줄었을 뿐 아니라 가져온 물건도 골동품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해주의 시골로 가서 골동품을 직접 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가 청자 주전자를 가진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신의주 골동품 거간꾼이 그 주전자를 사가고 난 뒤였다.[48]

주인공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주의 특산물인 '해삼'을 사서 혜산에서 도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해주, 평양, 신의주 등에서 온 외화벌이 기관들이 해삼을 말리기 바쁘게 싹쓸이해 가고 있었다."[49] 만약 주인공 일행이 말린 해삼을 사려면 집집마다 돌면서 미리 선금을 주고 기

46)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85-86면
47) 위의 글, 91면.
48) 위의 글, 101면.
49) 위의 글, 103면.

다려야 했다. 외화벌이 회사는 군대, 보위부 혹은 당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큰돈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돈주의 하나이다.[50] 외화벌이 회사는 말린 해삼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한다. 이 회사는 번 돈의 일부는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통치자금으로 상납한다. 자금력과 배경이 부족한 중소 도매상인들이 북한의 권력기관을 배경으로 둔 돈주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 사이에도 계층화가 발생하여, 자금력이 있는 상인들은 자금력이 약한 상인들에 대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거미줄 철도」와 「황해도 데미지」의 주인공들은 약한 자금력 때문에 3면 경대 장사와 골동품 구매에서 돈주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해삼 도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기관 산하 무역회사에 소속된 돈주는 개인 돈주보다 자금력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 상인들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둘 다 사업 자금을 대부분 탕진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

4. 사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경쟁 - 「재수 없는 날」

탈북작가의 소설을 보면, 남성 노동자들이 직장을 이탈하여 부업을 하거나 사노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명학의 「간리역 광장」을 보면 직장에 가지 않고 사설 숙박집을 운영하는 남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평양 근교 간리역에서 기차가 연착되어 사설 숙박집에서 자게 된다. 숙박집의 남자 주인은 "직장은 생산을 못 해 종업원들이나 강연회나 정치 행사 참가할 일이 아니면 대개 출근을 하지 않"으

50) 김직수, 「'돈주'의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 2012.12, 19-25면.

며, "직장에 8·3이라 불리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만 바치면" 결근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51]

이 장면에서 언급되는 8·3 제도는 기업소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암묵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북한에서 사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에 기여를 많이 하였다. 1990년 중반 경제 위기 전까지 북한의 노동정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전 국민의 노동을 의무화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성들-기혼여성은 전업주부 선택 가능-은 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했다.[52] 하지만 1992~3년부터 배급이 불규칙해졌고 1995년에는 북한 정부가 배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1997년에는 전 지역에서 배급이 중단되었다. 점점 노동자들은 배급과 임금을 주지 않는 작업장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8·3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가내수공업이나 사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운영자금과 위로 보낼 상납금이 부족했던 기업소들은 상납금을 내면 노동자들의 결근을 눈감아 주었다.[53]

그러나 사노동 시장에 나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8·3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기업소들은 8·3돈의 수금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결근을 눈감아주기 때문에, 부업거리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8·3돈 때문에 또 다른 곤경에 처한다. 김정애의 「오두막집 안주인」은 주인공이 8·3돈의 수금에 시달리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경심의 남편은 건설사업소에 소속된 노동자이지만, 8·3돈을 내기로 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애초 남편은 싸리 삼태기를 만들어 팔아서 8·3돈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집에서 삼태기를 만들고 있기에 공급이 과잉인

51) 도명학, 「간리역 광장」, 『단군릉 이야기』, 서울: 예옥, 2019, 160면.

52)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14면.

53) 원래 8·3은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의 약어로 통하는 낱말이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현지 시찰에 나갔다가, 생산 과정에 남은 폐자재 부산물을 이용해 간이 생필품을 만들어 팔아 주민 생활에 도움 주고 기업소가 얻은 추가 이득을 종업원 복지에 보태라고 지시한 것에서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 위의 글, 37-39면.

상태이다. 그래서 다들 가을에 곡식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삼태기를 팔았다. 건설사업소 당비서는 이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8·3돈을 수금하러 왔다. 경심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당비서는 경심이 밭에 심으려고 마련해 놓은 감자 종자를 8·3돈 대신으로 가져가 버렸다. 결국, 경심은 마지막 삶의 희망이 꺼지는 절망감과 며칠 동안 굶은 탓에 죽음을 맞는다.[54]

노동자들은 8·3돈을 내기로 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시장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다. 도명학은 「재수 없는 날」에서 이러한 사노동 시장의 경쟁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그가 한국에 와서 쓴 첫 작품으로 북한에서의 목격한 것을 소설화한 것이다. 그만큼 사노동은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받은 작가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자본주의적인 착취'로 보았던 듯하다.[55] 하지만,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사노동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이 경쟁에서의 패배하게 되면 죽는다는 점이다.

「재수 없는 날」의 주인공 창수는 직장을 이탈하여 사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그는 "힘밖에 가진 것이 없"는 덕분에 일용 잡일꾼으로 일했다. 그는 큰 상체에 짧은 하체를 가져 힘이 좋고 저렴하게 부릴 수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힘쓸 일만 생기면 그를 찾았다. 그는 품삯으로 좋은 음식도 필요 없고 배부르게 먹이기만 하면 충분했다.[56] 이후, 그는 북한의 3차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사노동의 하나인 구루마꾼이 되었다.[57] 그는 구루마(손수레)가 없었지만, 혜산역에서 상인들의 짐을 구루마로

54)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단군릉 이야기』, 서울: 예옥, 2019, 224-227면.

55) 도명학, 「재수 없는 날」, 20면.

56) 위의 글, 17면.

57) 북한에는 다양한 종류의 3차 산업형 사노동이 존재한다. 구루마꾼은 시장이나 역 주변에서 상인의 짐을 구루마로 옮겨주는 일을 한다. 구루마꾼 외에도 상인의 짐을 역으로 가져가서 부쳐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달리기 장수의 짐을 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일

운반하던 금옥에게 고용되어 그녀의 구루마를 끌게 되었다.

「재수 없는 날」은 사노동 시장이 자본주의적인 고용-피고용 관계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금옥은 구루마는 있었지만, 다른 구루마꾼에 비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품삯이 후한 좋은 짐-무거운 짐-을 놓쳤다. 창수는 힘은 소처럼 좋았지만 구루마를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금옥은 힘이 좋은 창수를 구루마꾼으로 스카웃했다. 금옥은 손님을 유치하고 창수는 구루마를 끌었다. 하지만, 금옥은 구루마라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번 돈의 70 프로를 갖고 노동자인 창수에게는 30 프로를 주었다. 며칠 안 돼서 둘은 이런 착취와 피착취 관계에 익숙해졌다. 창수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구루마 덕분에 배라도 불리고 집에 강냉이 국수 한두 사리라도 사들고 들어가게 돼 창수는 피착취 계급의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금옥이 역시 자기의 노동력 착취를 당연한 이치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덕에 창수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잉여 가치 법칙을 실험하고 있는 느낌이었다."[58]

사노동 시장은, 북한 주민들을 사회주의적 노동-배급 시스템에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 대신에 구루마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안원의 단속에 걸려서 구루마를 몰수당하고 노동단련대에 가는 일이다.[59]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으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나 "종업원의 출,퇴근 정형을 제 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적발되면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60] 단속의

을 하는 사람, 그리고 버스에 승객을 모아다가 태우는 몰이꾼이나 차를 정비해주고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사람도 있다. 대학생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과외를 하여 돈을 번다. 남의 집 살림을 돌봐주는 가정부도 인기 직업의 하나이다. 3차 산업 비공식 노동 시장의 공용주는 주로 개인이나 외화벌이 회사이다;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51-54면.

58) 위의 글, 19-20면.

59) 위의 글, 29면.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배급을 주지 않는 직장에 가기보다는 사노동과 같은 부업을 하는 것이다.

사노동은 노동자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으로 바꿔놓았다. 창수는 짧은 구루마꾼 경력 동안 다른 구루마꾼들과 함께 보안원의 단속에 걸려 보안서로 끌려간 일이 있었다. 보안원들은 구루마꾼들을 아사한 시체들을 구루마로 운반하여 산에 묻는 데 동원했다. 일이 끝난 다음, 보안원은 "앞으론 구루마꾼을 그만두고 직장에 나가시오. 누구나 동무들처럼 행동하면 누가 사회주의를 지키겠소."라고 훈시했다. 이에 화가 난 구루마꾼들은 "에이, 재수 없는 새끼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콱 쏴버렸으면 좋겠다." "뭐? 내일부터 직장 나가라고? 병신 같은 새끼. 직장 나가면 돈 주나 쌀 주나?" "그러게 말이야. 미친 새끼들, 우리 절로 벌어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성토한다.[61] 이런 대화를 통해 작가는 구루마꾼에게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거리와 돈이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수 없는 날」은 사노동 시장에서도 생존 경쟁이 상당함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 [가] 국경도시 혜산역은 각지에서 모여드는 보따리 장수들로 붐빈다. 열차에서 내린 보따리 장수들은 구루마부터 찾는다. 역전 광장에는 손님을 낚는 구루마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될수록 짐이 많고 먼 거리를 가는 손님을 잡아야 한다. 운 좋으면 한탕에 하루벌이를 다 할 수 있다. 반대로 장사꾼의 입장에선 구루마가 크고 구루마꾼이 힘깨나 쓰게 보여야 좋아한다.[62]

60) 김수암 외 3명, 『북한의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78-79면.
61) 도명학, 「재수 없는 날」, 34면.
62) 위의 글, 18면.

[나] 백가는 그전부터 강계 장사꾼의 짐을 독차지하는 사이였다. 금옥이 그런 줄 모르고 접근한 것이다. 어쩌다 횡재를 한다 했더니 난데없이 백가가 나타난 옥수수 마대를 씽씽 들어 자기 구루마에 싣는 꼴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나저나 다른 짐을 붙들기도 늦었다. 먹지도 못할 떡을 노리는 사이 역전에 내린 그 많던 짐들이 썰물 빠지듯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

"아저씨, 혼자만 싣지 말고 좀 나눠 실읍시다. 이 짐 때문에 다른 짐 다 놓쳤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금옥은 이판사판이 되자 백가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백가는 시커먼 눈알을 부라렸다.

"이거, 말 시키지 마오. 그게 아지미 사정이지 내 사정이오?"

백가는 강계 장사꾼에게 제꺽 한탕 갔다 오겠으니 나머지 짐은 다른 구루마에 싣지 말라고 오금을 박고 달아뺐다.[63]

[가]는 혜산역 앞에서 펼쳐지는 구루마꾼들의 경쟁을 보여준다. 작가는 힘이 세 보이는 구루마꾼일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며 수입이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구루마꾼들이 단골손님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혜산역에서 내린 강계 상인이 구루마 세 대 분량의 옥수수를 가져왔다. 금옥과 백가는 이 짐의 운반을 서로 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강계 상인과 오래 거래한 백가가 짐을 다 옮기게 되었다. 이런 풍경은 사노동 시장에도 역시 단골을 확보한 노동자가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가가 이렇게 단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맡아놓은 짐을 가로채는가 하면, 다른 구루마가 실수로 자기 구루마와 부딛쳐도 성깔을 부릴" 정도로 경쟁자들에게 성질 더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또한 사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쟁자를 폭행한다

63) 위의 글, 20-21면.

는 것도 보여준다. 금옥은 강계 상인의 짐에 욕심을 부리다가 다른 손님을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녀는 백가가 짐을 운반하는 사이에 "짐을 왜 한 사람한테만 주는가. 장사에선 시간이 돈이라는데 구루마 한 대로 어느 세월에 다 나르겠는가"라며 강계 상인을 구슬렸다.[64] 그런데, 혜산역으로 돌아오던 백가가 금옥과 창수가 자기의 단골 상인의 짐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백가는 금옥이 자기 짐을 가로챘다고 분개하며 그녀를 구타하였다. 이런 백가의 모습은 「진옥이」에서 진옥이 다른 기름 장수와 손님을 두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두 소설은 공통되게 억세고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북한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루마꾼 같은 노동시장에서 금옥과 같은 여성이나 소처럼 힘만 세고 성격이 드세지 못한 창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음날, 금옥이 집에서 요양하게 되어 창수는 혼자 구루마를 끌어야 했다. 이날은 창수가 가장 짐이 많은 손님을 찾은 날이다. 하지만, 그에게 이날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다. 감독하는 금옥이 없어지자 창수는 구루마 짐삯으로 장마당에서 음식과 술을 진탕 먹었다. 창수는 금옥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역전에 가서 짐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는 그만 구루마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사이 누군가가 금옥의 구루마를 훔쳐갔다.[65] 구루마를 잃은 두 사람의 미래는, 보안원에게 구루마를 압수당한 구루마꾼이 "거리에서 구걸하다가 굶어죽게 되는 것"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66]

64) 위의 글, 22면.
65) 위의 글, 83면.
66) 위의 글, 29면.

5. 결론: 경쟁 사회로 변화 중인 북한 사회

이상에서 이 논문은 김유경의 『청춘연가』(2012), 설송아의 「진옥이」(2015), 그리고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2018), 「거미줄 철도」(2021), 「황해도 데미지」(2022)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시장을 매개로 한 '경쟁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작가들의 소설은 시장 참여 주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상인들은 이미 자신이 선점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이들에게 텃세를 부린다. 장해성의 『두만강』, 설송아의 「진옥이」, 그리고 도명학은 「재수 없는 날」은 장마당의 좌판 장사에서부터 큰 자본이 드는 휘발유 장사 상인들, 그리고 사노동자들이 손님을 두고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묘사한다. 「진옥이」에서는 손님 유치를 위해서 담배를 서비스로 주거나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와 같은 서비스 경쟁도 벌인다.

둘째, 탈북작가들의 소설은 상인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 적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인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는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진옥이(「진옥이」)처럼 큰돈을 벌 수도 있고 선화(『청춘연가』)처럼 시장 경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또한, 금옥(「재수 없는 날」)이 남성 노동자를 고용하여 구루마로 상인들의 짐을 운반하여 돈을 버는 것과 달리, 선화가 손수레를 팔고 중국 남자와의 매매혼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 적응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탈북작가의 작품들은 돈주가 시장 경쟁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도명학의 「거미줄 철도」와 「황해도 데미지」는 이중 경제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상업 자본가들(돈주)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두 소설은 돈

주들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활용하여 상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신용을 형성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금력이 약한 상인들은 북한 시장을 장악한 돈주들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탈북작가의 작품들은, 피라미드의 하층에 가까울수록 시장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 생존 자체의 위기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청춘연가』에 따르면, 영세한 여성 상인의 파산은 가정의 해체와 본인의 탈북이나 인신매매로 이어진다. 「재수 없는 날」은 남성 노동자들도 사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 논문에서 분석한 탈북작가의 소설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시장 경쟁'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집단 동원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공식 담론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들은 북한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공장과 농장 등에서 노력 경쟁에 동원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마당이나 사노동 시장에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당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관료적 지배하에 두는 '이중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는 현실은 북한의 시장화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동원과 경쟁이라는 이중고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이 분석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쟁에서의 승패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보고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탄압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이중고는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제1차 자료

김유경, 『청춘연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김정애, 「오두막집 안주인」, 『단군릉 이야기』, 서울: 예옥, 2019, 219-244면.

도명학, 「간리역 광장」, 『단군릉 이야기』, 서울: 예옥, 2019, 149-186면.

도명학, 「거미줄 철도」,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서울: 예옥, 2021, 89-136면.

도명학, 「재수 없는 날」, 『잔혹한 선물 : 도명학 소설집』, 파주: 푸른사상, 2018, 15-38면.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해주 인력시장』, 서울: 예옥, 2022, 83-114면.

설송아, 「진옥이」, 『국경을 넘는 그림자』, 서울: 예욕, 2015, 221-250면.

설송아, 『사회주의 시장 풍경』, 시산맥사, 2022.

장해성, 『두만강』, 파주; 나남, 2013.

2. 제2차 자료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2010.6, 총115면.

곽인옥, 임을출, 「평양 시장 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 2016, 263-290면.

김병론,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3, 171-213면.

김수암 · 이금순 · 김국신 · 홍민, 『북한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 2012.12, 총71면.

김진환, 「천리마 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보』 20호, 북한연구학회, 2016.12, 31-62면.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50호,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12, 364-398면.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면.

양문수, 「2000년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제9권 제5호, 한국개발연구원, 2007.05, 3-23면.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0.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3.01, 총284면.
이경재, 「탈북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통일인문학』 76,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55-285면.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7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25-54면.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183-185면.
존 M. 톰슨,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2011.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77-121면.
「북한 시장화의 주역은 '중간도매상'」, 『Daily NK』, 2010.03.25.

<Abstract>

Market Competition since the Mid-1990s in North Korea Depicted in North Korean Defectors' Literary Works

Bae, Gae-hwa

Socialism means that the production tools is belonging to the s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aily necessities needed by the people are planned and done by the state. Therefore, there is no competitive buying and selling for profit as seen in a capitalist society. However, marketization from the below due to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from the mid-1990s has caused competition among market agents. Recent North Korean defectors' literary works vividly show the whole façade of market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competitions between various market agents such as donju [commercial capitalists], wholesalers, retailers, and private labors. This essay, based on analyzing the works of Kim Yu-kyeong, Do Myeong-hak, and Seol Song-a, sheds lights on three aspects of market competition in North Korea: the competition between retailers in marketplaces, the competition between commercial capitalists and small and medium-sized wholesaler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private labors. This essay concluded that commercial capitalists are the most competitive and dominant agents in the current North Korean market system and that among the participants in market competition the lower layer in the economic pyramid has more possibility of defeat in market competition, which finally leads to the crisis of their survival. Previous researches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se aftereffects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Contrarily this essay offers a clue to more vivid understanding of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new challenges faced by North Korean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arduous march, marketization, competition

투 고 일 : 2022년 11월 25일 심 사 일 :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 2022년 12월 26일